

최근 중국 수입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 **[검토 배경]**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 여부가 국내 경기 향방에 중요한 역할

⇒ 최근 중국 수입의 특징적 현상을 살펴보고 향후 장단기 수입 여건을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회복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최근 동향 및 특징]

- (최근 동향) 지난해 중국 수입은 전년대비 1.1% 감소하는 등 성장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수입이 급감*하고 국가별로는 EU 및 OPEC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이 하락

* 원유 수입량이 7.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으로 원유 수입액이 26.2% 감소한데 기인

- (주요 특징적 현상) 수입-수출간 연계가 약화된 가운데 첨단소재 부품과 고급소비재 수입이 증가했으며 아세안 국가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단기 및 중장기 여건 점검]

- (단기 여건)

- ① (내수중심의 빠른 회복세) 중국경제는 민간·제조업 투자,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도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증가세 지속
- ②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에 수요 확대) 신인프라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 등으로 첨단산업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확대
- ③ (생산시설 탈중국 현상 지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간재를 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국내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지연

○ (중장기 여건)

- ①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 쌍순환 정책 추진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의 질적성장 구조로 전환이 가속
- ② (첨단 소재부품 자급조달 강화 노력) 미국의 규제, 정부주도 투자의 비효율성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위기술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강화
- ③ (글로벌 공급망(GVC) 전방참여도 상승) 첨단소재 자립 노력 강화,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지 다변화 경향으로 중국의 GVC 전방참여도가 후방참여도 대비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

◆ [종합평가 및 시사점] 금년에는 제조업투자 및 민간소비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인프라 확충에 따른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수입수요가 큰 폭 늘어날 전망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화장품 등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중장기적으로 내수중심 성장구조의 정착 및 GVC상 중국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소비재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간재 자급공급망이 확대되는 등 대중국 수출여건이 변화될 가능성

○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할 필요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최근 동향 및 특징	2
1. 최근 동향	2
2. 주요 특징적 현상	5
III. 향후 여건 점검	8
1. 단기 여건	8
2. 중장기 여건	11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15

I

검토 배경

- 중국경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 2021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소비 및 투자의 본격적 회복, 2020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8%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

 -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는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2021~24년중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25~35%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 2020.12.3일)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경제가 적극적 투자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

 -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관계로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 여부는 국내경기 향방에 중요한 역할
 -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전환 등으로 중국경제 회복의 국내 수출에 대한 영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우려
 - * 지난해 중국경제의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마이너스 (-2.7%)를 기록
-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수입에서 나타난 특징적 현상을 살펴보고 향후 장단기 수입 여건을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회복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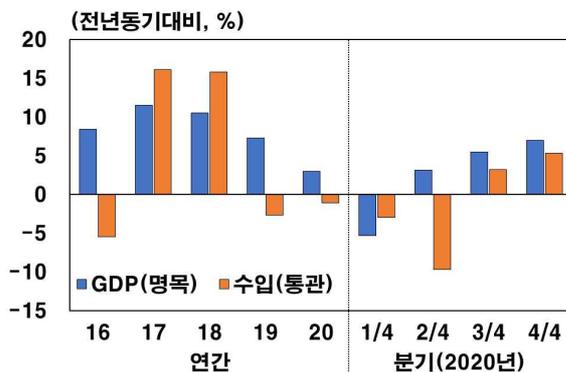
최근 동향 및 특징

- 지난해 중국 수입은 전년대비 1.1% 감소하는 등 성장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수입이 급감하였으며 국가별로는 EU 및 OPEC 국가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하락
- 수입-수출간 연계가 약화된 가운데 첨단소재 부품과 고급소비재 수입이 증가했으며 아세안 국가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1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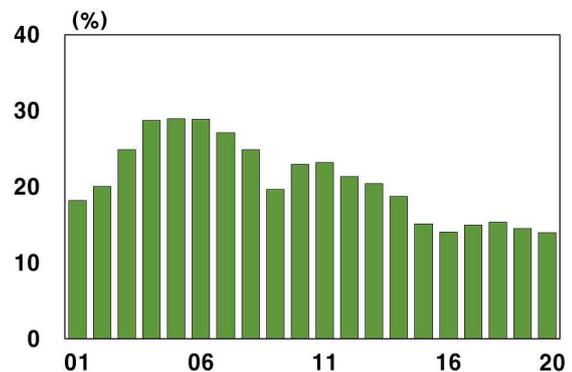
- 지난해 중국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3/4분기 들어서야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성장보다 더딘 회복세 시현
 - 2020년 수입은 전년대비 1.1% 감소하여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GDP대비 수입 비중은 2001년 이후 최저치인 14.0%로 하락
 - 다만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금융위기나 2015년 경기침체기 때보다 상당히 짧은 편(<참고 1> 참조)

명목GDP 및 통관수입



자료: CEIC

GDP대비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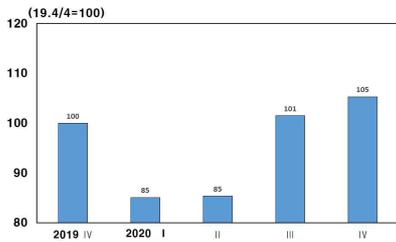
자료: CEIC

<참고 1>

경기침체기시 중국 수입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5년 경기침체기 때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수입 감소폭이 작았으며 회복속도도 빠른 편
- 금융위기나 2015년 침체기시 직전 수입 수준을 회복하는데 각각 18개월, 36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금번 위기시에는 9개월 정도에 불과

코로나19 이후 수입액



자료: 해관총서

주요 경제위기와 비교

	2008년	2015년	2020년	
前고점 ¹⁾ →저점	소요기간	6개월	15개월	6개월
	변동폭 ³⁾	-36.1%	-22.3%	-12.7%
저점→再고점 ²⁾	소요기간	12개월	21개월	3개월
	변동폭 ³⁾	66.3%	35.3%	15.7%

주: 1) 위기 기간중 저점 직전의 고점
 2) 前고점 수준을 재달성한 시점
 3) 각각 前고점 및 저점 대비 변동폭
 자료: Haver(sa계열),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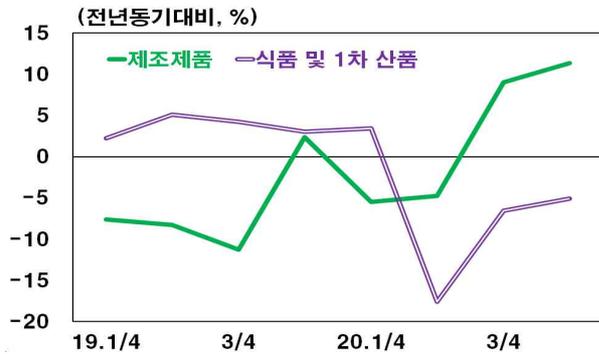
- 품목별로는 유가가 큰 폭 하락하며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1차 상품 수입이 급감한 반면 제조제품 수입은 전자장비(중간재+최종재)를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큰 폭 증가
- 원유 수입량이 7.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으로 원유 수입액이 26.2% 감소한데 기인
 - 2/4분기중 유가가 전년동기대비 52% 급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0% 가량 낮은 수준(두바이 기준)

▶ 원유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19	2020				
			1/4	2/4	3/4	4/4
· 물량 기준	9.0	7.2	5.0	14.6	18.3	-7.6
· 금액 기준	0.2	-26.2	8.2	-48.1	-22.0	-38.0

자료: Haver

- 코로나19로 IT 제조업 및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 빨라지며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확대

품목별¹⁾ 수입



주: 1) SITC 기준
자료: Haver

수입증가율(전년대비, %)	2019	2020
· 식품 및 1차 상품	3.7	-6.6
(식품)	(24.6)	(21.6)
(철)	(16.4)	(7.6)
(석유제품)	(-1.6)	(-23.6)
· 제조제품	-6.4	2.9
(화학제품)	(-2.0)	(-2.3)
(전자장비)	(-3.4)	(12.3)
(기계 및 운송장비)	(-9.7)	(-1.7)

주: 1) SITC 기준
자료: Haver

□ 국가별로는 미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이 큰 폭 늘어났으나 중동 등 원유 생산국으로부터 수입은 크게 감소

○ 대미 수입 (2/4 -5.1% → 3/4 10.1% → 4/4 38.3%)은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2020.1월) 이행*을 위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남

* 다만 2020년 합의 이행률(10월 기준, CSIS)은 57%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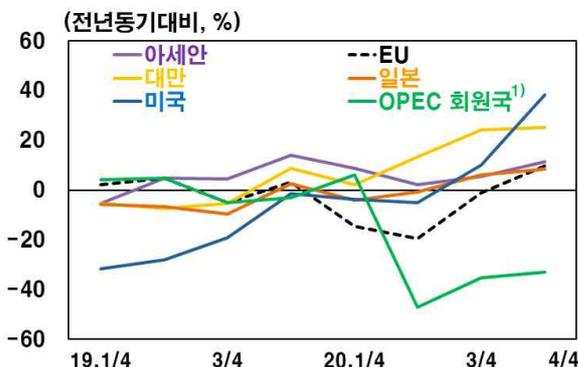
○ 대만으로부터 수입은 전자·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

* 2020.2/4~4/4분기 대중국 수출(각각 9.1%, 14.4%, 15.8%)중 반도체와 통신기기 기여도가 큰 폭 증가(11.9%p → 13.2%p → 14.6%p)(대만 재정부)

○ 한편 EU 및 OPEC*을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

* 주요 OPEC 회원국(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로부터 2020.2/4~4/4분기중 수입이 급감(전년동기대비 -38.6%)

국가별 수입



주: 1)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자료: CEIC

수입증가율(전년대비, %)	2019	2020
대 만	-2.4	16.9
미 국	-21.3	10.4
아 세 안	4.6	7.0
일 본	-5.0	2.7
E U	1.1	-6.2
OPEC 회원국 ¹⁾	0.0	-28.0

주: 1)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자료: 해관총서

2 주요 특징적 현상

□ (수입-수출 연계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완만히 하락하던 수입과 수출의 연계가 지난해 급격히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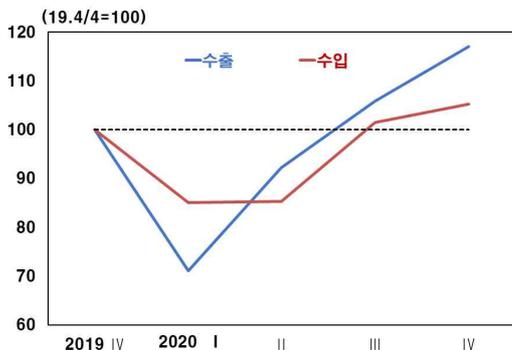
○ 코로나19 발생 직후 수출은 신속한 V자형 회복을 보였으나 수입은 시차를 두고 더디게 회복

▪ 코로나19 확산과 주요국 소비부양책으로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요가 큰 폭 늘어나며 수출은 빠르게 반등

* 의료용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용 마스크(섬유산업)의 경우 원료 및 중간재의 수입 의존도(8.0%)가 전체 평균(12.4%)을 상당 정도 하회

▪ 이로 인해 수입과 수출간 상관관계가 급격히 하락

코로나19 이후 수출입 회복력¹⁾



주: 1) 19.4/4분기=100
자료: CEIC, 자체 시산

수출·수입간 이동 상관관계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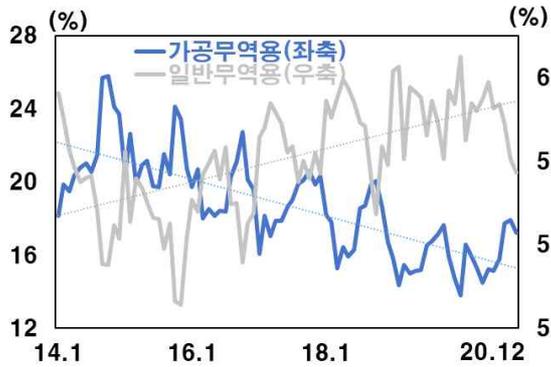
주: 1) 계절조정 전월대비 증가율, 5년 기준
자료: Haver, 자체 시산

○ 한편 금융위기 이후 수입-수출 연계의 기초적 약화는 노동집약적 가공무역 약화, GVC 전방참여도 상승 등에 기인

▪ 인건비 상승,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으로 노동집약적 완제품 생산 중심의 가공무역이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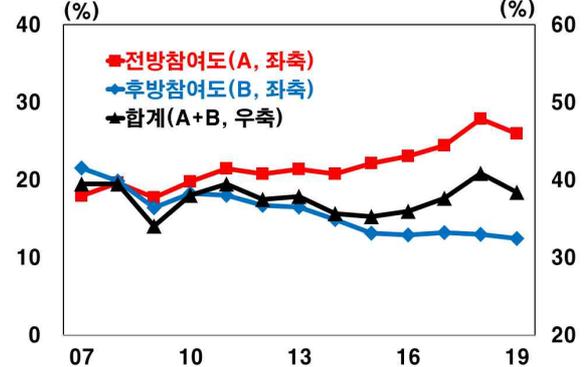
▪ 중간재 생산능력 향상으로 가공무역 생산시설이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며 중국의 GVC 전방참여도가 상승

가공무역 비중



자료: CEIC

GVC 전후방 참여도



자료: ADB MRIO, 자체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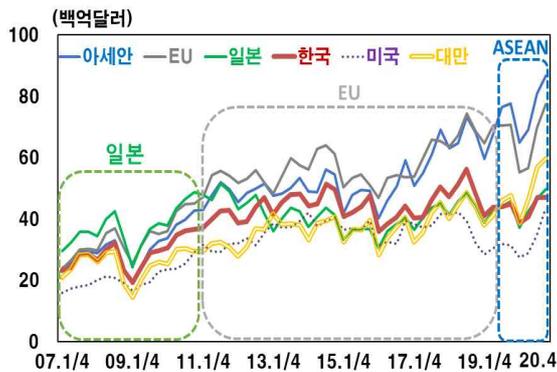
□ (對아세안 수입비중 확대) 아세안으로부터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며 2019년 하반기부터 아세안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

○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금융위기 이전) → EU(금융위기 이후) → 아세안(미중 갈등, 코로나19 발병)으로 전환

▪ 아세안 내에서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비중이 큰 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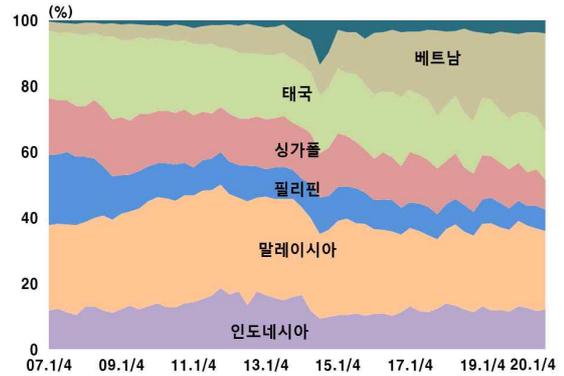
* 베트남 비중이 2007.1/4분기 2.8% → 2020.4/4분기 29.9%로 증가

국가별 수입비중



자료: CEIC

아세안 회원국내 수입비중



자료: CEIC

주요 연도, 국가별 수입품목

	일본	EU	ASEAN
최대 수입상대국 기간	2007.1/4 ~ 2011.1/4	2011.2/4 ~ 2019.2/4	2019.3/4 ~ 2020.4/4
품 목 ¹⁾	반도체(4.9%)	승용차(4.6%)	전자기기 및 부품(38.8%)

주: 1) HS6(2017), 해당 기간 분기별 평균 기준, 2020년은 2/4분기까지
자료: ITC

□ (첨단 소재부품 중심 확대)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 비중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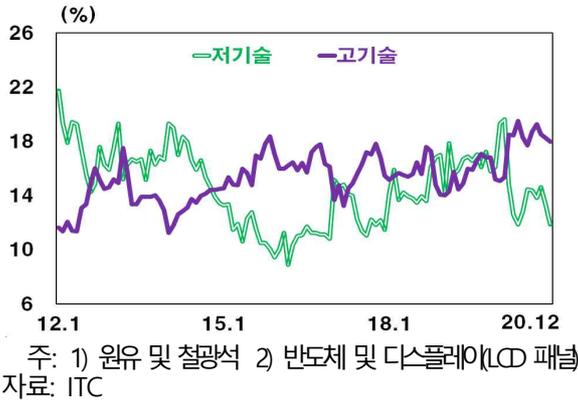
- 원유, 철광석 등 기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원자재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반면 IT 기반 제조업 성장으로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반도체 수입은 큰 폭 확대

기술수준별 주요 수입품목 비중 변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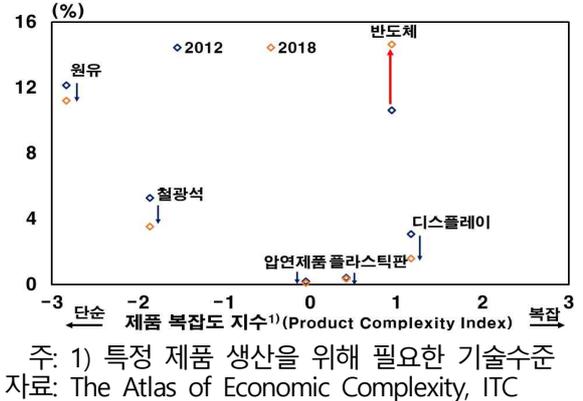
▶ 기술수준	반도체	디스플레이	압연제품	플라스틱판	원유	철광석
	높음		중간		낮음	
▶ 수입비중 변화폭(%P) ¹⁾	+4.0	-1.5	-0.1	-0.1	-0.9	-1.7

주: 1) 2012년과 2018년 차이
자료: ITC,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저위기술¹⁾ 및 고위기술²⁾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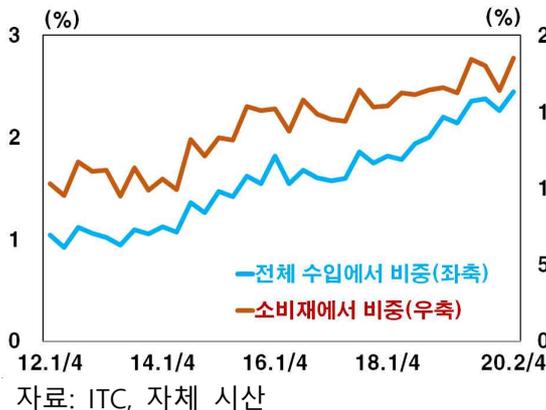
기술수준별¹⁾ 주요 품목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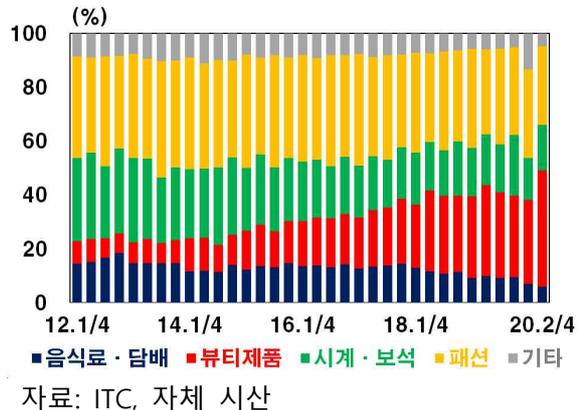
□ (고급소비재 수입 증가) 고급소비재 수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2020. 상반기중 2.1% 증가)로도 증가세 지속

- 특히 보석, 패션, 화장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고급소비재 규모



고급소비재 수입 구조



Ⅲ

향후 여건 점검

- 금년 중국경제는 투자,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특히 신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공 수출기업의 탈중국화가 지연
- 중장기적으로 중국정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중간재 자국 조달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
 - 소비중심의 성장동력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GVC 전방참여도가 상승하고 첨단소재 자급노력이 더욱 강화

1 단기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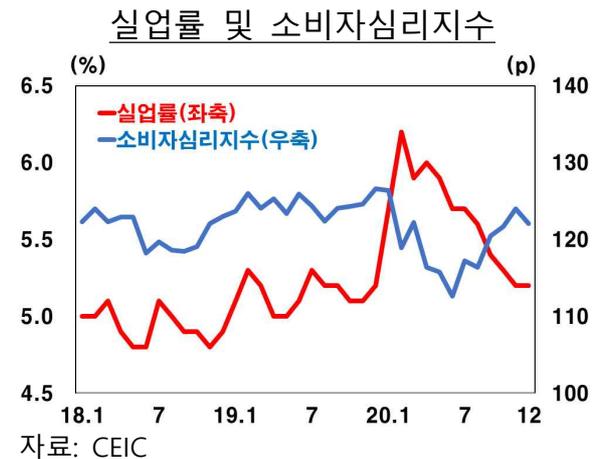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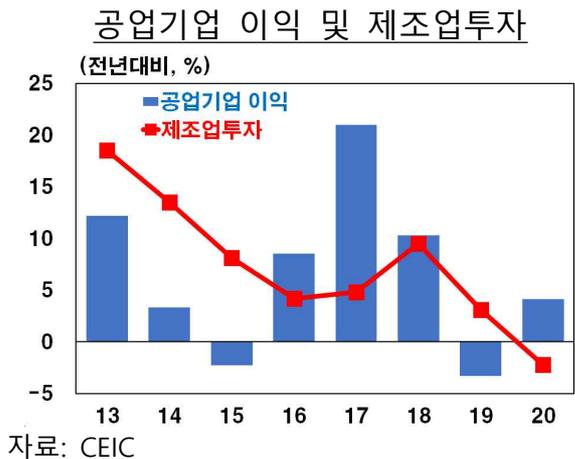
(내수중심 빠른 회복세)

- 금년 중국경제는 민간·제조업투자,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주요기관 전망(전년대비, %)	IMF (21.1)	OECD (20.12)	세계은행 (20.12)
· 2019년		6.0	
· 2020년		2.3	
· 2021년	8.1	8.0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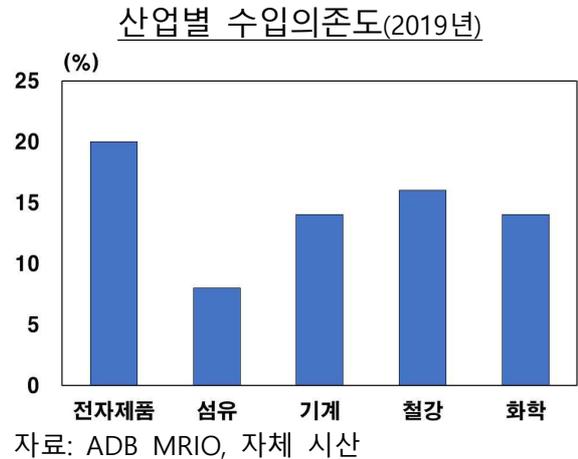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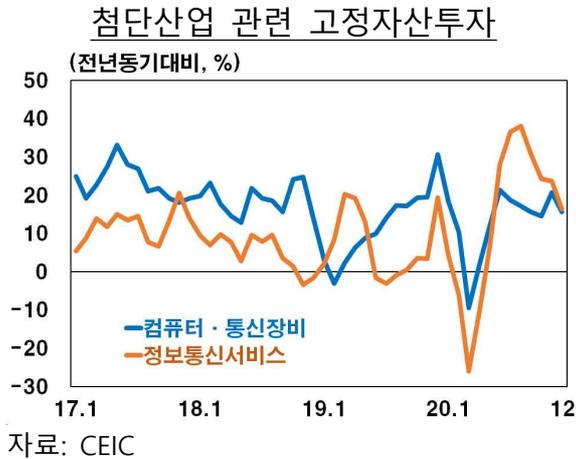
- 수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민간·제조업 투자가 기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확대되고 지난해 부진했던 소비도 고용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회복
 - 공업기업 이익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 4.1% 증가 (2019년 - 3.3%)
 - 지난해 2월중 6.2%까지 급등하였던 실업률은 12월 5.2%(19.12월과 동일) 까지 하락하였으며 6월중 112.6p까지 하락하였던 소비자심리지수도 빠른 회복세

- 수출은 의료용품 등 코로나19 관련 품목을 제외한 여타 품목의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JP Morgan, 2021.1.8일)
 - 이에 따라 지난해 크게 약화되었던 수입-수출 연계관계가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



(반도체 등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 증대 지속)

- 신인프라 확충이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
 - * 전자제품, 통신장비 등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우 국가별 수직적 분화가 더욱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IMF, 2020)
- 스마트시티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5G 및 데이터센터, 사물인터넷 장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
- 또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으로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
- 첨단 소재부품 자급률이 단기간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수입 의존이 불가피
 - 반도체의 경우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2020년중 자급률 40% 달성이 어려운 상황(2020년 16%, IC Insights)
 - 특히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대만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중국의 첨단부품 수급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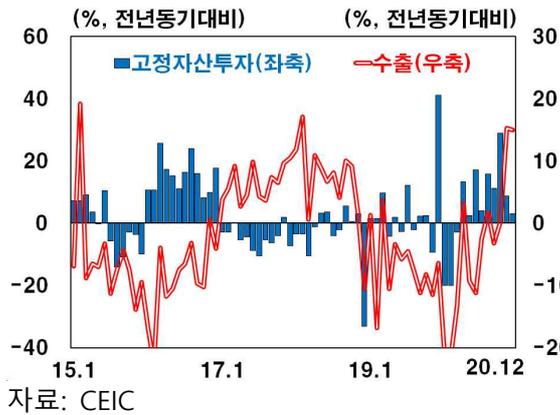


(가공 수출기업 탈중국화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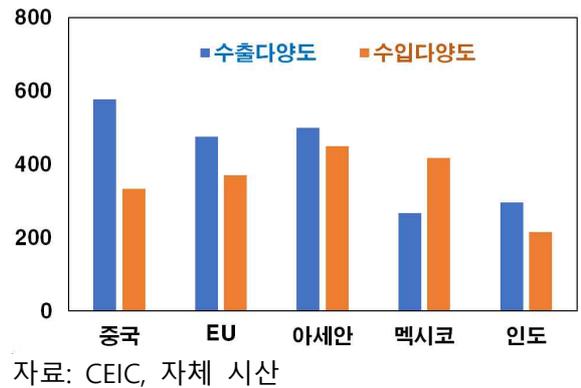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간재를 가공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중국내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 이전이 지연

- 코로나19 발생이전 중국내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가 동남아, 인도 등지로 이전
 - 코로나19 발생초기 대대적인 봉쇄조치로 중국내 생산차질이 발생하자 글로벌 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한 우려와 탈중국 심리가 확산 (<참고 2>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의향 설문결과」 참조)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이후 주요국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 반면 중국은 견조한 생산능력을 유지
 - 중국내 외국자본기업의 고정자산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수출도 양호한 증가세 지속
 - 또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을 고려했을 때 중국내 생산시설을 여타 국가로 이전하는 데는 상당한 부가비용이 발생
 - 중국은 집적화(integrated) 및 고착화(entrenched)된 대규모 산업공급망을 바탕으로 수출다양도*가 아세안, EU 등 주요 경제권역보다도 높은 수준
- * 수출을 하는 산업의 개수 / 산업별 수출 비중의 제곱합

외국자본기업의 고정자산투자 및 수출



수출 및 수입 품목 다양도(2018년)



2 중장기 여건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

□ 중장기적으로 “쌍순환” 정책* 추진이 강화되면서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의 성장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

* <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참조

○ 가계의 높은 저축을 소비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료·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도시화 및 호구제도 개혁을 촉진

▪ 중국 정부는 도시 호구의 취득 요건을 꾸준히 완화해 왔으나* 여전히 대도시로 인구 유출입이 제한**되는 등 개선 여지는 상당

* 1984년 호구제도의 점진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는 3백만명 이하 중소도시의 호구 취득 요건을 완화

** 5백만명 이상의 대都市는 여전히 농촌인구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술자, 고학력자 등 해당 도시에 필요한 특정 계층에게만 호구 부여

▪ 사회보장 지출 확대 및 농민공 도시유입은 도시화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소비 확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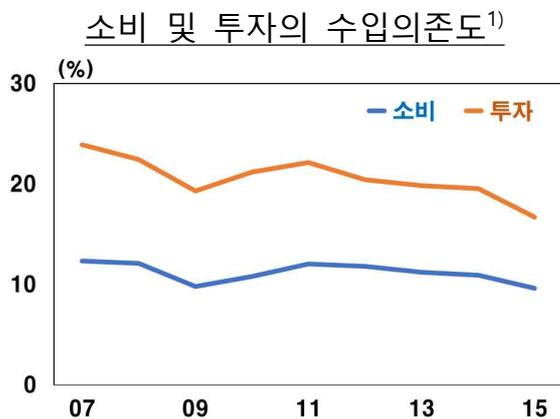
* 정부의 연금·실업보험 지출 확대, 도시화율 상승 등 소비여건 개선의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중국의 GDP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30년 47%까지 상승할 전망(골드만삭스, 2020.11.2일)

- 한편 도시화 촉진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겠으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효투자 증대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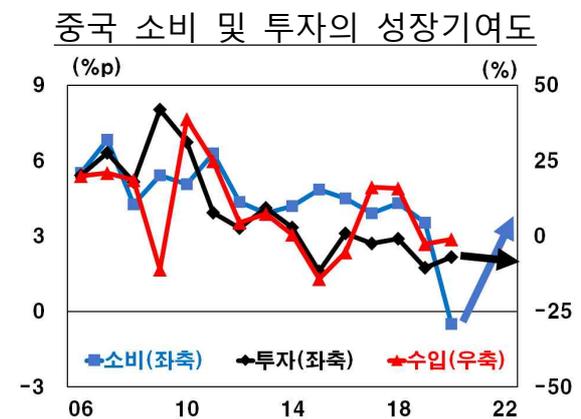
* 산발적인 도시인프라 확충보다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 설정

⇒ 중국 경제가 수입유발 효과가 투자보다 낮은 소비 주도로 성장*하면서 수입이 경제성장만큼 늘어나지 못할 가능성

*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전망(eMarketer, 2020.6.23일)



주: 1) 부가가치 기준
자료: OECD



자료: CEIC

(첨단 소재부품 자립도 강화 노력)

□ 첨단 기술 접근 및 습득에 대한 미국의 규제, 정부주도 투자의 비효율성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국 정부는 첨단소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

○ 미국의 기술 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정부주도 투자의 부작용이 제약요인으로 작용

* 우한시 인근 지역에서 가장 기대받던 반도체 생산업체 우한홍신반도체제조 (HSMC)가 실제로는 생산능력이 없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7월 파산 신청

-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의 경우 국가별 수직분화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공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쌍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확보 및 첨단소재 자립을 장기계획(14.5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로 채택

-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부품·기술 수요처인 데다 연구개발 투자 지출액은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 수준
-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뿐 아니라 민간자금 제공이 용이하도록 상장 절차를 완화*

* 중국은 2019.7월 첨단산업의 기업공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과학혁신판(科創板, STAR Market)’을 개시하고 2020.6월 기존의 ‘창업판(創業板·ChiNext)’도 과학혁신판과 동일한 요건을 도입

당국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 기존 주식시장보다 전체 상장기간이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추정(골드만삭스, 2019.6.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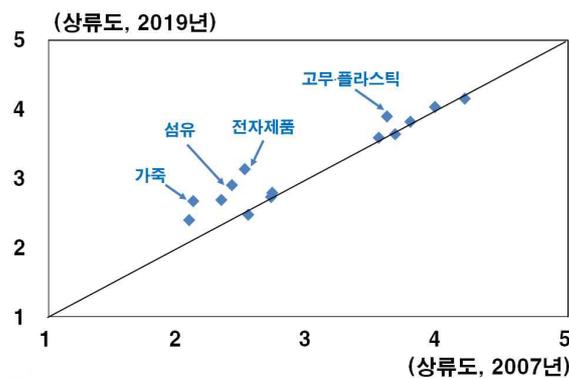
⇒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반도체 등 첨단소재 자립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

* 추가적인 미국의 제재가 없다면 2025년에 반도체 자급률 40%를 달성할 가능성 (모건스탠리, 2020.6.16일)

(글로벌 공급망 전방참여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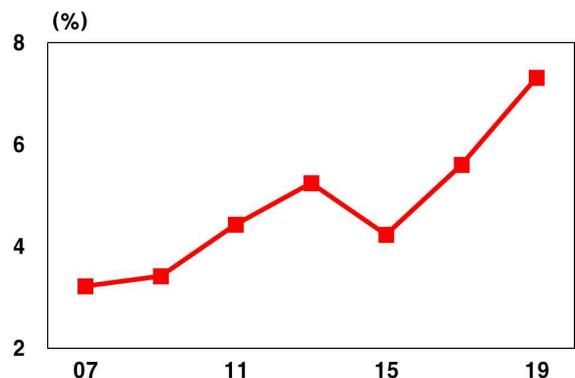
- 쌍순환 전략에 기반한 소재부품 자립 노력 강화,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 생산지 다변화 경향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내 전방참여도가 후방 참여도 대비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
 -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제도 확대 및 친환경 정책 강화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생산기지의 탈중국화를 촉진할 가능성
 - 중국의 거대 소비시장과 접근성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최종재 생산시설 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중간재의 동남아 수출이 확대
 - 이에 따라 생산시설이 주로 이전되는 아세안 국가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중국의 GVC 위치가 중간재 수입·최종재 수출에서 중간재 수출·최종재 수입구조로 전환이 진행되면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하락

중국 주요 제조업별 GVC 상류도¹⁾ 변화



주: 1) GVC내 위치가 어느 정도 상류(Upstreamness)에 있는지 측정
자료: ADB MRIO

중국의 對아세안¹⁾ 중간재 수출의 중국 귀착률²⁾



주: 1)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2) 중간재로 가공한 최종재가 다시 중국에서 최종재로 소비되는 비중
자료: ADB MRIO, 자체 시산

IV

종합평가 및 시사점

- 금년에는 제조업투자 및 민간소비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인프라 확충에 따른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수입수요가 상당폭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화장품 등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중장기적으로 내수중심 성장구조의 정착 및 GVC상 중국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중간재 자급공급망이 확대되는 등 대중국 수출여건이 변화될 가능성
 -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할 필요

- (2021년 전망) 신인프라투자 등 내수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가 더해지면서 수입수요가 큰 폭 늘어날 전망

▶ 주요IB 수입전망(전년대비, %)	<u>모건스탠리</u> (2020.11)	<u>제이피모건</u> (2021.1)	<u>골드만삭스</u> (2021.1)
· 2020년		-1.1	
· 2021년	10.5	9.7	6.0

- 비대면 IT서비스업 등 디지털 경제 관련 업종이 급성장하고 신인프라 확충이 주요 정책과제로 강조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지속
- 주요 교역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연계 수입도 늘어날 전망
 - 성공적인 질병 통제 및 견조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당분간 지속

- 한편 소비 회복은 수입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국 소비자의 자국산 제품 선호도가 높고 소비재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그 효과는 다소 제한적

* 국가별 수입소비재 비중 : 중국 3.8%, 미국 12.5%, 일본 11.1%(2020.7월)

□ **(중장기 전망) 쌍순환 성장전략이 본격 시행되고 GVC상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수입수요에서 소비재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중·저위 기술 중간재 비중은 하락할 전망**

-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중심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고급소비재 시장이 확대*

* 중국경제가 빠르게 미국 경제규모를 추월(워싱턴대학(2035년), 국무원(2032년), 일본경제연구센터(2028년))하면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

- 자국내 중간재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중·저위기술 중간재 수입비중이 완만히 하락하겠으나 첨단 소재부품 자급에는 난관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수입 의존은 불가피*

*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 IT기업에 대한 규제 및 고위기술 접근 제한 등이 중국 기업의 고위기술 첨단소재에 대한 접근 및 기술자립 속도를 제한

-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중국의 GVC 전방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들 국가와의 교역규모도 지속 확대*

* 삼성전자는 중국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2019.9월)했으며 폭스콘 회장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시사(2020.6월)

□ **(시사점) 중국경제의 견조한 회복세는 우리나라 對중국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소비회복에 따른 화장품 등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신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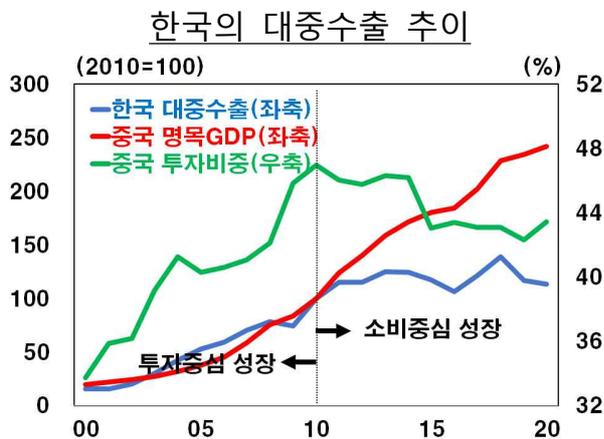
* 중국 화장품 매출은 2021년에도 2자리수 성장을 보이며 한국 기업의 매출 신장에 기여할 전망(제이피모건, 2020.12.7일)

** 중국의 질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화 노력은 한국의 IT 제품 수입으로 이어질 전망 (크레딧스위스, 2021.1.8일)

○ 다만 **중장기적으로** 내수중심의 성장구조가 정착되고 자국내 부품소재 공급망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는 등 **대중국 수출 여건 변화에 대비할 필요**

- 중국경제가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본격적으로 전환(투자 역할 축소) 되면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
- 향후 중산층 가구의 증가 및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소비재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시급할 뿐 아니라 첨단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우위 유지가 절실

*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주요국대비 매우 낮은 수준 (2018년 기준 독일 12.0%, 미국 11.4%, 일본 10.0%, 우리나라 3.4%, 한국무역협회)



자료: CEIC, 한국무역협회, 자체 시산

품목별 대중수출 기여도(연평균)

	(%p, %)	
	'01~'10	'11~'20
소 비 재	0.6	0.3
(화 장 품)	(0.1)	(0.3)
(기타소비재)	(0.5)	(0.0)
자 본 재	5.5	-0.8
중 간 재	14.0	1.8
(반 도 체)	(3.4)	(1.8)
(기타중간재)	(10.6)	(0.0)
전 체 수 출 ¹⁾	20.3	1.3

주: 1) 기간중 연평균 대중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참고 2>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의향 설문결과

-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격화로 리쇼어링이 본격화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생산품 공급에 차질을 겪으면서 리쇼어링 의향이 증가
 - 미국기업의 경우 본국 및 캐나다, 멕시코 등 인접국가, 아시아 기업의 경우 본국으로의 회귀(대만, 일본, 한국) 혹은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로의 생산설비 이전 고려
 - 리쇼어링의 주요 고려요인으로 인건비, 자동화시설 확산, 정부의 세제혜택 등이 있으며 헬스케어 및 식품 등 소비재, 반도체 등의 IT관련 산업 중심 진행 중
-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이 리쇼어링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역화 추세 지속 예상

해외기업의 생산설비 리쇼어링 의향 설문결과 주요내용¹⁾

발표기관	설문대상	주요 내용
AmchamChina &PWC	25개 미국회사 임원진 (20.4월)	- 단기내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설비 이전계획 없음(72%) - 장기(3~5년내)에 공급망 변경계획 없으나(40%)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응답도 상당(52%) - 2019년 대비 '미중 디커플링 불가능'하다는 응답률 감소 (66%→44%)
UBS	미국기업 CFO 450명(20.1월)	- 코로나19 전후로 리쇼어링 완료 혹은 계획중(76%) - 주요 리쇼어링 대상국은 미국(82%), 캐나다(38%), 일본(29%), 멕시코(23%), 브라질(11%), 인도(11%) 순 - 헬스케어, 소비재 회사가 주로 이전
	북아시아 기업 CFO 150명 (20.3월)	- 코로나19 전후로 리쇼어링 완료 혹은 계획중(85%) - 리쇼어링 대상국은 본국으로 회귀(대만, 일본,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 집중 - 리쇼어링시 IT인프라, 제조시설, 설비자동화를 중심으로 투자 증가 예상
BofA	각 대륙별 애널리스트 (총 3,000개 기업 담당) (20.2월)	- 북미와 아시아 기업(83%), 유럽기업(90%)이 리쇼어링 논의 개시 - 북미기업이 아시아, 유럽기업에 비해 리쇼어링이 활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비재 등) - 본국으로의 리쇼어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생산자동화와 정부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해결 예상(소프트웨어, 식품업) - 리쇼어링에 따른 지역화가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잡음
Thomas ²⁾	북미 제조업 실무담당자 878명 (20.4월)	- 자국으로의 생산설비 리쇼어링 고려(64%) - 생산 자동화 설비 확충 추진(25%)

주: 1) ()내는 응답률 2) 북미 제조업체 대상 컨설팅회사

<참고 3>

“쌍순환” 정책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 **[도입배경]** ‘쌍순환(双循环)*’ 정책은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제시한 이후 10월 5중전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부상

* 국내 대순환을 시작으로 국내와 국제간 쌍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조를 의미하며, 내수시장에 초점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

○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기존 수출, 투자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의미

- 이는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갈등이 기존 무역분쟁부터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되어 서방세계의 코로나19 책임론 제기 가능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

올해 미·중갈등 주요 현황

일 자	주요 내용
2020.5.15	美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
7.6	美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 금지 방안 검토 발표
8.6	美 바이트댄스·텐센트와 거래 금지 행정명령
8.17	美 화웨이 계열사 38개 수출통제목록 추가 및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화웨이와 거래하는 모든 반도체 회사 제재
9.25	美 SMIC와 거래시 면허 필요 발표
11.12	美 내년 11월부터 블랙리스트(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명단, 총 31개)에 오른 기업의 증권취득을 금지
12.3	美 중국기업 4개(중신귀지(SMIC), 중국해양석유(CNOOC), 중국국제전자상무중심그룹(CIECC), 중국건설기술(CCT))를 블랙리스트에 추가

자료: 언론 종합

□ **[주요 내용]** 5중전회에서 “쌍순환” 정책을 실현할 14.5계획의 초안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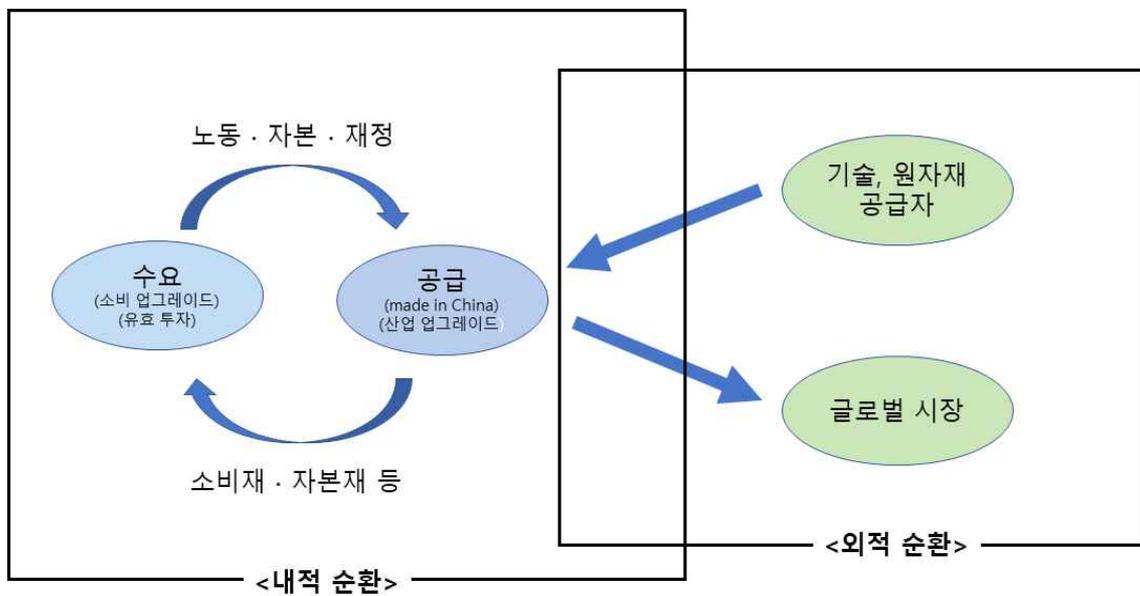
* 내년 3월 개최예정인 양회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기술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가운데 내수위주의 성장전략, 환경보호 강화, 대외개방 및 구조개혁 등 질적성장을 더욱 앞당기기 위한 노력

- 내수 중심의 성장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국내순환을 위주로 개방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부문을 상호 촉진
-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보장 재정지출 확대
- 질적성장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기준을 더욱 강화

⇒ 내적 순환이 활성화 된다면 늘어난 시장과 기술력을 통해 외부와의 교역과 대외 투자거래가 확대되는 간접적인 효과

- 대외 충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외부 시장을 개척하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내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외부와의 결속까지 노리는 다소 소극적(Sub-optimal)인 전략(Citi, 2020.10월)



자료: Citi

《 참고자료 》

- 김태기, 박구승, “무역의 다양성과 교역상대국이 자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대외경제연구, 2006.6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0.2월
- _____,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2020.7월
- 산업연구원,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발전 정책”, 중국산업경제브리프, 2020.9월
- 양시환, 이종호, “글로벌 가치사슬이 산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7.7월
- 이균건, 박정하, 박진, 이윤정, “우리나라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구조 변화가 우리 수출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20.12월
-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및 시사점”, 2019.10월
- _____,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2020.2월
- AMCHAM CHINA, & PWC , “Supply chains are shifting: how much and where?”, 2020.4월
- Aqib Aslam et al., “Calculating Trade in Value Added”, IMF Working Paper, 2017.7월
- BBVA, “De-Sinicization of Global Value Chain after COVID-19”, 2020.6월
- BofA Securities, “Tectonic shifts in global supply chains”, 2020.2월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s Vietnam Eating into China’s Share of Manufacturing”, 2020.6월
- Citi, “Will Focus on Essential Supply Chains Further Accelerate the Relocation of Manufacturing Out of China?”, 2020.5월
- _____, “Internal Circulation Economics (1): Old Wine in a New Bottle?”, 2020.8월
- _____, “Dual Circulation Economics (3): The Making of China’s Consumer Society”, 2020.10월
- _____, “Implications of a Biden Administration for the China Economy and US-China Relations”, 2020.10월
- CreditSuisse, “South Korea: A recovery fueled by external demand and investment”, 2021.1월
- eMarketer, “China’s Retail Market Surpasses the US in 2020”, 2020.6
- Fortune, “It would cost \$1 trillion to move global supply chains out of China - but the long term gains could be worth it”, 2020.8월

Goldman Sachs, "Science-Technology Innovation Board (Part 2): What are China's STARS?", 2019.6월

_____, "Looking back to look ahead: Changes in China's role in global supply chains", 2020.7월

_____, "China: 14th Five-Year Plan preview", 2020.10월

_____, "Dual circulation and beyon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hina's long-term growth", 2020.11월

_____, "China: Visualizing Policymakers' Long-term Economic Targets", 2020.12월

_____, "The Power of Strong Exports", 2020.12월

IC Insights, "China Forecast to Fall Far Short of its "Made in China 2025" Goals for ICs", 2021.1월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 Staff Report for the 2020 Article IV Consultation, 2020.12월

Jehan Sauvage, "Measuring distortions in international markets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OECD Working Paper, 2019.11월

J.P.Morgan, "China's import-light growth", 2018.8월

_____, "Out of China and its repercussions", 2020.9월

_____, "Asia Pacific Equity Research: Consumer Staples", 2020.12월

_____, "Ten questions about China in 2021", 2021.1월

Kevin Yao, "Explainer: What we know about China's 'Dual circulation' economic strategy", World Economic Forum, 2020.9월

MIT Sloan, "Reshoring, restructuring, and the future of supply chains", 2020.7월

Morgan Stanley, "China Forecast to Fall Far Short of its "Made in China 2025" Goals for ICs", 2020.6월

_____, "China Urbanization 2.0 | Revisit: Progress on Track", 2020.9월

_____, "2021 China Economics Outlook: Consumption in Driver's Seat", 2020.11월

Nomura, "China's dual circulation strategy: A tale of chips versus homes", 2020.10월

OECD, "The Face Mask Global Value Chain in the COVID-19 Outbreak: Evidence and Policy Lessons", 2020.5월

Rabobank, "Decoupling US-China supply chains: High tech on the move", 2020.7월

Thomas, "Thomas Survey: Two-Thirds of Manufacturers Likely to Reshore as a Result of Pandemic", 2020.5월

UBS, "Supply chains are shifting: how much and where?", 2020.6월